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신임 편찬위원장 선출 · 겨레말 편찬 현장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이 만난 사람

### 해외동포 문학 발굴과 보존에 힘쓰는 김종희 교수

#### “고려인 문학 발굴은 민족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의미 있는 일”

겨레말큰사전은 2006년부터 남과 북,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우리말 새어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0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한글 문학 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국학자료원, 2010.12)의 저자 김종희 교수(경희대학교 국문과)를 만나 중앙아시아 문학 자료 발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종희 교수와의 인터뷰는 정도상 상임이사가 진행하였다.

**정도상** 우선 인터뷰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최근 내신 책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 발굴 자료를 봤습니다. 현재까지 발굴한 자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책에 실리지 않은 자료가 더 있는지요.



▲ 김종희 교수

**김종희** 저는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민족의 문학까지 포함한 통합 한국문학사를 저술하기 위한 연구를 꽤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북한문학을 연구했지만, 그러다가 해외에 있는 한민족문학까지 범위를 넓히게 되었지요. 그동안 후학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자료의 부족을 통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국제한인학회와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현지 문인과 연구자들을 통해 문학자료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근, 김부르트 등 고려인 문학인 8명의 시 46편, 수필 2편, 희곡 5편 등 총 57편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이들 작품들이 모두 책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에 실려 있으며, 여기에 실리지 않은 자료는 없습니다. 올 8월에는 연변에 가서 연변조선족 문학에 대해 세미나도 하고, 자료도 발굴할 생각합니다. 겨레말큰사전 측에 도움을 바랍니다.

####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우리말로 작품 창작을 하는 마지막 세대의 유품에 해당되는 것”

**정도상** 중앙아시아 현지에는 한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인 문학작품을 발굴하기가 그만큼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문학작품을 발굴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지난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고려문학센터, 고려신문사 등의 도움을 얻어 현지의 문인, 연구자들을 통해 자료를 발굴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우리말로 작품 창작을 하는 마지막 세대의 유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자료의 발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트에 적혀 있는 친필원고를 수집했다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필원고는 고려인 문단의 대표작가 중 한분인 강태수의 작품 ‘그날과 그날밤’ 원고입니다. 이런 귀한 자료를 한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좋지 않고, 앞으로 문학박물관 등이 생기면 기증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 원고를 있는 그대로 책에 자료로 실었습니다.



▲ 발굴된 고려인 문학 작품 원본

**정도상** 고려인들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구소련 붕괴 등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발굴된 문학작품 자료에는 고려인들의 역사와 삶이 표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작품을 보시고 느끼신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앞서 소개한 강태수(1909~2001)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에서 고려인 문단을 형성했던 대표적 문인 중 한명으로 38년 ‘발갈이하는 처녀에게’라는 시 때문에 시베리아 원시림으로 끌려가 22년간 격리된 채 지냈습니다. 그의 단편소설 ‘그날과 그날밤’은 80대의 작가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회고한 작품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중앙아시아 문학 작품들은 고려인들의 단순한 삶의 기록이 아닌 독립운동과 강제 노역 등 현지 고려인의 애환과 이주 민족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값진 기록들입니다.

카자흐스탄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중에서도 작가들이 꽤 있을 텐데 앞으로는 그들의 작품도 면밀하게 연구해볼 예정입니다. 아마 그 작품들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우리 문학에 담지 못했던 사실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과정에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민족의 큰 재산이며 자산입니다.”

**정도상** 선생님은 국문학자이시면서 민화협 정책위원 활동 등 남북관계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남북문제와 언어문제가 결합된 사업입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우리 민족사 또는 언어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진행에 조언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김종희** 북한문학을 공부하면서 남북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학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남북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평소에도 늘 생각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과정에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규모가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민족의 큰 재산이며 자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라 사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민족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꼭 이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정도상**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쓰인 고려인 문학이 사라질 위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고려인문학을 보존,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김종희** 현재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다수를 이루는 5세대, 6세대는 더이상 한국어를 쓰지 않고 러시아어나 현지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우리말로 쓴 문학작품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은 민족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인들을 비롯한 재외동포 중에서 탁월한 작가들이 나올 텐데, 굳이 우리말로 창작을 하지 않아도 한민족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품이라면 범주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소련 지역 고려인들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연구 대상은 곧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열자, 여행이 끝나버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 재외동포의 문화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시간 속으로 사라져 갈 위험이 있습니다.



▲ 인터뷰 모습 / 김종희 교수(오른쪽)

#### 김종희 교수, 중앙아시아와 연변에서 발굴한 문학작품 원문자료를 겨레말큰사전 사업회에 제공

김종희 교수는 인터뷰를 마친 후 해외문학동포전집(중앙아시아, 연변지역)의 텍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김종희 교수가 제공한 자료는 사업회의 중앙아시아, 연변지역의 새어휘 조사 자료와 용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업회는 김종희 교수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며,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쓰고 있는 우리말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겨레말큰사전 제32호

##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신임 편찬위원장 선출** · 겨레말 편찬 현장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 신임 편찬위원장 선출

## 홍종선 고려대 교수, 4대 남측편찬위원장 선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지난 4월 28일 제51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홍종선 교수(고려대 국문과)를 제4대 남측편찬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홍종선 신임 남측편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남북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겨레의 뜻을 모은 이 사업은 곧 정상화되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처음의 계획대로 꾸준히 편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연구원, 편찬원들을 독려하고, 여러 편찬위원들과 힘을 합쳐 북측과의 소통에 부단히 노력하여, 역사에 남을 훌륭한 사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밝혔다.

홍종선 신임 남측편찬위원장은 고려대와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주대 국어교육과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고려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을 펴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사전편찬실 실장을 역임하고, ‘국어사전학개론(2009)’ 등을 저술하여 국어사전 편찬 연구에도 힘써 왔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과 집필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열정과 헌신으로 기여해 왔다. 홍종선 남측편찬위원장의 임기는 2014년 2월까지이다.





# 겨레말큰사전 제32호

##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신임 편찬위원장 선출 · 겨레말 편찬 현장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 찾아가는 겨레말

## 다양한 언어자료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사업회는 사전 편찬 및 언어 관련 연구기관을 찾아 각종 사전 편찬 작업과 언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연세한국어사전과 연세초등사전 등을 편찬하고 꾸준한 언어연구 관련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을 찾았다.

1986년 '한국어사전편찬회'로 출발한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은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를 널리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정보화하며, 각종 언어 정보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큰사전을 비롯한 각종 사전 편찬에 관련된 연구, 언어의 정보화에 관련된 전자·전산 기술의 개발, 언어 정보에 관한 자료의 수집·정리·출판, 국제 사회에서 한국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위해 산하에 사전연구센터, 언어정보 연구센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구센터, 전문용어 연구센터, 다문화 연구센터, 인문정보화 연구센터 등 총9개의 연구센터를 두어 각 분야 연구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언어정보연구원은 대규모의 전산화된 언어자료의 집합인 말뭉치(corpus)를 1980년대 후반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여,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약 4,300 만 어절을 구축하였다. 이는 300 쪽의 단행본 천여 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동안의 말뭉치 작업이 대상을 현대 한국어 문어만으로 한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에서 구축한 말뭉치는 글말과 입말 등 음성 언어까지 다양한 언어자료를 전산화한 특징을 갖는다.



▲ 연세 한국어사전과 연세 초등국어사전

이러한 전산화된 말뭉치에서 각 낱말의 빈도(사용 회수)를 조사하여 고빈도어(사용 빈도 140이상) 약 5만 단어를 선정하여 연세한국어사전(1998)을 편찬하였다. 그 외 편찬한 사전으로는 연세초등국어사전(2002), 연세초등영어사전(2007), 연세초등한자사전(2008) 등이 있으며, 포털사이트 웹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연세현대한국어대사전을 2002년부터 편찬 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에 먼저 온라인(베타버전)을 오픈하였다.

한편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은 학술연구를 위한 학술대회와 학술발표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에 개최된 제 70회 학술발표회에서는 재일 국어학자인 남윤진 선생을 초청해 일본어와 한국어 간 대응 양상의 양면적 가치를 한국어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 제27회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학술대회 모습

## 겨레말큰사전

제 32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신임 편찬위원장 선출 · 겨레말 편찬 현장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소식

## 안양 평화 아카데미 강연

지난 4월 7일 안양 평화아카데미(원장: 이종만)가 진행한 <평화오피니언리더 5기과정>에서 '우리말, 글, 얼'이라는 주제로 사업회 정도상 상임이사의 강연이 있었다.

이번 강연은 안양·군포·의왕 지역의 정치인, 교사, 의사, 대학생, 시민 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겨레말큰사전 사업 소개, 새어휘 조사 현황 등 우리말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안양 평화 아카데미 강연은 역사, 경제, 복지, 문화 등 총8강좌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문화를 주제로한 5강좌에서 겨레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 겨레말큰사전 제32호

##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신임 편찬위원장 선출 · 겨레말 편찬 현장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소식

## 사업회 직원 단합대회

사업회는 지난 4월 21일 강화도 문화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직원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번 직원 단합대회는 주요 문화 유적지 탐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인 보문사, 외규장각을 보유한 고려궁지, 조선 후기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19세까지 살던 용흥궁, 한국 최초의 성당인 성공회 강화성당을 둘러보았다.

이날 직원들은 모처럼 문화와 유적이 함께 숨쉬는 강화도 답사를 통해 사업회의 화목과 단결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겨레말큰사전 제32호

##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신임 편찬위원장 선출 · 겨레말 편찬 현장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소식

## 우리말 어휘 조사 위해 사할린 방문

사업회 정도상 상임이사, 한용운 편찬실장, 이길재 새어휘팀장은 《겨레말큰사전》에 실을 우리말 조사의 일환으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사할린을 방문한다.

사할린 지역 우리말 조사는 5월 10일 한인협회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교육원, 새고려신문사, 우리말방송국을 찾아가 사할린에서 발간된 한글 문헌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또한 사할린 국립종합대학 한국어과를 방문하여 사할린 지역의 한국어 교육 역사와 현재의 한글 교육 현황에 대해서도 듣는다.

또한 현지에서 한인 작가를 만나 사할린이나 러시아에서 발간된 시, 소설, 잡지 등의 한글 문헌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확보된 문헌자료 속 어휘를 조사하여 검토 후 사할린 동포들의 일상 언어를 《겨레말큰사전》에 실게 된다.